

유진 박, 사기도 당했다

서울장애인인권센터, 김모씨 고소
총합 7억 원 규모 사채·형령 혐의



유진 박

1990년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유진 박(44)이 또다시 매니저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 전 소속사의 착취 논란이 벌어진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유진 박의 현 매니저 김 모 씨(59)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형령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김 씨가 조울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유진 박 몰래 그의 명의로 약 1억8000만 원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 원을 횡령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현재 이를 수사 중이다.

장애인인권센터의 김동현 변호사는 10일 “MBC가 유진 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제보해 왔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일 밤 ‘MBC스페셜’에서 공개됐다.

연출자 성기연 PD는 “제작진이 법적인 보호 및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었다. 방송에서 유진 박에 관한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도 고심했다”고 말했다. 성 PD는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그의 상황이 안타까웠다. 이를 공개해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진 박은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진 박은 1990년대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고 마이클 잭슨 방한 콘서트에도 참여했고,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연주했다.

하지만 2009년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2017년 국내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열고 재기를 노렸지만 다시 착취 파문으로 안타까움을 샀다.

유지혜 기자

이번엔 우주 비행사 송중기의 무한 도전

7월부터 영화 ‘승리호’ 촬영 돌입



송중기

연기자 송중기가 대담한 도전으로 신선한 기획의 영화와 드라마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스타 배우로서 위치를 노리는 모양새다.

송중기는 7월 SF블록버스터 ‘승리호’(제작 영화사비단길) 촬영에 돌입한다. 최근 한국영화계가 관심을 쏟는 우주 이야기다. 송중기는 ‘우주시대’를 여는 첫 한국영화의 얼굴을 자임하며 10월 말까지 4개월간 또 다른 출연자인 김태리, 진선규 등과 촬영에 나선다.

‘승리호’는 비슷한 시기 기획된 김용화 감독의 ‘더 문’, 윤제균 감독의 ‘귀환’과 더불어 우주 이야기를 다루는 SF영화로 주목받았다. 현재 ‘귀환’은 시나리오 재정비에 들어갔고, ‘더 문’은 한창 기획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돌입하게 된 ‘승리호’를 통해 송중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전을 앞서 이끌게 됐다.

송중기는 극중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치 않는 파일럿 역을 맡는다. 연출자 조성희 감독과 2012년 영화 ‘늑대소년’으로 706만 관객을 불러 모은 파트너십에 힘입어 ‘승리호’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약속하고 의견을 나눠왔다. 투자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 관계자는 10일 “기획단계에서부터 영화뿐 아니라 웹툰, 게임, 드라마 등 이른바 ‘원소스 멀티 유스’ 콘텐츠로 개발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합류한 송중기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숫자로 본 방탄소년단 스타디움 투어

117,000,000,000원

‘스타디움 투어’ 8개 도시 16회 공연 티켓 수입 추정치



해바라기로 변신한 BTS 그룹 방탄소년단이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유럽 공연을 마치고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멤버 가운데 진, 제이홉, 슈가(왼쪽부터)가 해바라기 모양의 가면을 쓰고 모습을 드러내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이 케이팝 가수 최초로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라는 타이틀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8월과 9월(이하 한국시간)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를 거쳐 7월 일본에 이르는 무대다. 전 세계 8개 도시에서 16회에 걸쳐 펼쳐 있지만 또 다른 도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써가는 새로운 기록이기도 하다. 해외 각종 매체들도 “신기록” “새로운 역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발자취를 집중조명하고 있다.

객석 규모에 비춰 가장 큰 무대인 스타디움 투어, 세계 최정상급의 스타들만이 선다는 바로 그 무대에 나선 방탄소년단. 이들의 역사적인 현재는 다양한 수치로도 드러난다.

●65만 명

5월 미 LA 로즈볼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디움 투어까지 동원한 총 관객 수다. 이 가운데 LA 로즈볼, 시카고 솔저필드, 뉴저지 메트로아프 스타디움까지 미국의 총 3개 도시 6회 공연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32만 관객을 모았다. 해당 공연장은 모두 각 도시의 스포츠를 상징하는 ‘성지’로 불리며 세

650,000명

미국·브라질·유럽투어 관객수

5,180,000,000원

웹블리 공연 생중계 판매 금액

계적인 팝스타들도 쉽게 서지 못했던 무대다.

미국에 이어 점령한 곳은 브라질. 지난달 26일과 27일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 스타디움에서 2회 공연을 펼치며 총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리고 곧바로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달 2일과 3일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12만 명, 프랑스 파리에서 11만 명 등 총 23만 명을 모으며 유럽투어도 흥행에 성공했다.

7월6일과 7일 일본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13일과 14일 시즈오카 스타디움에서 펼쳐는 4회 공연의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51억8000만 원

스타디움 투어 가운데 영국 런던 웹블리 공연이 2일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1948년 런던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만 오르다는 ‘꿈의 무대이자 팝의 성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곳 공연만 특별히 실시간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였다.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 ‘브이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웹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유료(1500코인·3만7000원) 콘텐츠임에도 동시에 14만 명이 접속했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해외 국가별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1170억 원

방탄소년단이 이번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하며 벌어들인 티켓 수입이다. 물론 추정치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수입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고 자세히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만, 박스오피스 및 투어 집계 업체인 ‘투어링 데이터(Touring Data)’는 최근 방탄소년단이 각 도시에서 판매한 티켓 수량과 금액 등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보면 한 공연의 티켓 가격은 좌석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를 평균하면 127달러(약 15만 원) 선이다. 판매된 티켓은 총 78만 247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티켓 수입만 1170억 원에 달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1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양다리 논란 남태현, ‘메피스토’ 하차



남태현

가수 장재인과 교제 도중 일명 ‘양다리’ 논란에 휩싸인 남태현이 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남태현은 7월28일까지 공연하려던 뮤지컬 ‘메피스토’ 출연을 포기하기로 했다. 10일 제작사 메이커스프로덕션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남태현 배우는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방송 예정인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도 촬영분 일부가 편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장재인은 남태현이 교제 도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남태현은 이에 사과했다.

현역 박형식, 논산 훈련소 입소



박형식

연기자 겸 가수 박형식이 10일 입대했다. 박형식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신병 훈련소에 입소했다. 기초 군 사훈련을 받고 이후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기동대에 서군 복무한다. 전역은 2021년 1월이다. 박형식은 4월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해 합격 통지를 받았다. 박형식은 2010년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데뷔한 뒤 KBS 2TV ‘가족끼리 왜 이래’, ‘화랑’, ‘슈츠’ 등으로 연기를 펼쳤고 최근 영화 ‘배심원들’의 주연을 맡았다.

에프엑스 출신 설리, 솔로가수 데뷔



설리

결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가 솔로가수로 데뷔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설리가 이달 말 첫 솔로곡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에프엑스의 멤버로 활동해온 설리는 영화 ‘리얼’ 등으로 연기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설리는 지난해 11월 딘의 싱글 ‘하루살이’에 피쳐링 참여하기도 했다.

엄정화, 부천국제영화제 심사



엄정화

배우 엄정화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심사위원이 됐다. 엄정화는 27일부터 7월7일까지 열리는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부천 초이스’ 장편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엄정화는 “새로운 세계관과 독창적인 스타일, 장르문법의 실험과 진보를 담아내는 12편”의 영화를 시상 여부를 심사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사투리 고증과 대사 전달 고심…‘녹두꽃’의 숨은 노력

뉴스인사이드

기획 때부터 방언 연구자 도움 받아
자문 선생님 녹음본까지 준비 철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는가? 그네를 밀어주고 잡구마.”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의 주인공 조정석이 한예리를 향해 털어놓은 고백이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애절한 감성을 담아내며 화제가 됐다. 이처럼 ‘녹두꽃’은 완성도 높은 전라도 사투리 대사로 드라마 보는 맛을 더한다.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호평도 이어진다.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아한 전라도 고부(현재 정읍시)를 중심 배경으로 삼고 있다. 조정석, 박혁권 등 주요 등장인물들이 고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라도 사투리 연기는 필수다. 고부는 지리

적으로 전라북도에 속한다. 하지만 역량이 거센 전라남도 사투리가 드라마에 더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아는 시청자는 많지 않다. 연출자 신경수 PD는 “최대한 지역적 감수 과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극중 등장인물들의 출신 지역 설정에 따라 두 지역의 사투리를 혼용하지만 비교적 전라남도 방언의 역량이 일반에 친숙하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전라도 사투리에 능숙한 ‘자문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고 있다. 이들이 직접 녹음한 대사를 연기자들에게 전달한다. 연기자들은 이 녹음본을 기초로 대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신 PD는 “현장에 때때로 이들이 나와 어려운 사투리 대사를 지도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호남 출신 연기자들도 있다. 극중 채서 역을 연기하

는 전남 목포 출신 황영희와 남서방 역의 정선철 등이 주역이다. 이들은 호남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투리 연기로 인정받아 온 만큼 동료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낸다.

‘정도전’으로 이미 사극을 경험한 정현민 작가의 집요함도 빼놓을 수 없다. 신 PD는 “정 작가는 제작진도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정도로 현실감 높은 사투리를 치밀하게 담아낸다”며 “이를 위해 작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 방언 연구자들에게서 규칙성, 발음 등에 관한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발화하는 사투리아발로 ‘녹두꽃’의 정수라 할 만하다. 신경수 PD는 “결국 사투리 대사를 소화하는 연기자들이 드라마를 빛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석을 비롯한 모든 연기자들이 완성도 높은 사투리 연기를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